회의 날짜 20.03.16

회의 참석자

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14 강현신

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34 박재근

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49 안종현

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85 최재훈

그리기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우한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서 를 이용하여 음성 및 채팅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.

**회의 내용**

1.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?
2. 팀장과 팀 명이 무엇인가?

**1.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?**

팀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지 방학부터 꾸준히 토론해왔다. 그동안 나온 의견으로는 가톨릭대학교 트리니티, 사이버캠퍼스, 가대톡 통합이나 날씨를 알려주는 돌 등이 있었다. 이 중에서 학교 시스템 통합을 골라 진행할까 했지만 어딘가 한편으로는 프로젝트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.

그래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둔 채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“2020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” 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. 온라인 강의로 OT를 보던 중 외부 공모전에도 나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. 공모전에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팀원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며 우리 팀은 “2020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”을 준비하게 되었다.

텍스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<https://www.true-inno.com/ko/suggestionView.do?cSeq=46ad7bc159da30c5b21b7871260a9f8f&strSearchType=>

*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API를 필수로 사용해야한다. 관광정보 API에는 국내 산, 국립공원 등 관광장소의 사진 설명 정보 등이 있었다. 어떤 관광 앱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
* 공모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었는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지난 공모전 수상작들을 검색해보고,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해봤다.
* 팀원들끼리 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의견을 나눌 때 숙박과 음식이 나왔다. 이 중에서 숙박관련 앱은 많이 있어서 음식에 집중해보기로 했다.
* 회, 분식, 고기 등 먹고 싶은 음식 키워드를 선택하여 키워드별로 음식점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넣기로 했다. 카카오지도 API에 음식점들 별로 키워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, 그 키워드를 이용하기로 했다.
* 키워드 별로 음식점을 보여주는 의견에서 무슨 키워드를 정할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를 발견해서 예전에 봤던 사진 하나를 떠올렸다. 앱에 재밌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효과도 있는 방법이라 팀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. 후에 관광지를 고를 때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했다.

하얀색, 모니터, 다른, 대형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**2. 팀장과 팀 명이 무엇인가?**

팀명: 여행거르미

1. 키워드별로 음식점, 관광지를 걸러준다는 의미
2. 여행하는 사용자와 함께 같이 가며 도와준다는 의미

팀장: 박재근

팀원: 강현신 안종현 최재훈

**팀장이 할 일**

1. 고기방패 2. 발표 3. 영수증 첨부 4. 보고서 작성 5. 역할분담 시키기